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5월 6일

CUOMO 주지사, 은행에 대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평가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은행들이 직면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과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이버 보안 보고서의 공개를 발표하고, 금융서비스부(DFS)가 규제하는 은행들에 대해 새로운 정기적이고 목표를 겨냥한 사이버 보안 대비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DFS에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오늘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포식자들로부터 뉴욕주의 재정이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은행에 대한 목표를 겨냥한 사이버 보안 평가는 금융 기관을 공격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고 개인의 은행 기록이 뚫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बैं킹을 위해 가입할 때 그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 기관들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장 Benjamin M. Law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금융 생활의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은행들은 점점 더 구미 당기는 사이버 공격 목표가 됩니다. 해커들은 소비자 개인 정보를 훔치고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을 교란할 새 방법을 궁리하느라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그 도전에 맞서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이버 보안 보고서 소견

공격의 정교함 증가

오늘 발표된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DFS가 규제하는 1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1년간의 광범위한 설문조사의 산물입니다. 은행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적절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구축의 난제로는 위협의 정교함 증가(71%)와 새로 대두하는 기술들(53%)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 기관이 지난 3년 동안 그들 IT 시스템의 침입 또는 침입 시도를 경험하였습니다. IT 시스템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은 다양한데 금융 기관들은 악성 소프트웨어(맬웨어)(22%),

Korean

피싱(21%), 파밍(7%) 및 봇넷 또는 좀비(7%) 관련 사고를 보고하였습니다.

금융 기관들이 보고한 사이버 침입으로 발생한 가장 빈번한 타입의 불법 활동은 계정 탈취(46%), 신원 절도(18%), 통신망 두절(15%), 데이터 무결성 파괴(9.3%)였습니다. 제3자 결제 처리 시스템 침투도 각각 작은 은행들의 18% 및 큰 은행들의 15%가 보고하였습니다. 큰 은행들은 또한 모바일 뱅킹 착취(15%), ATM 스키밍/포인트오브세일 스킴(23%) 및 내부자 액세스 위반(8%)을 언급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기회로서의 사이버 보안

이 보고서는 또한 크고 작은 대다수의 은행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사이버 보안 지출을 증대할 계획이어서 뉴욕주의 일자리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기회를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은행들의 3/4 이상(77%)이 지난 3년 동안 총 정보 보안 예산의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대부분(18%)이 정보 보안 예산이 같은 수준을 유지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거의 어떤 은행들도 지난 3년 동안 지출 감소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 대다수(업계 전체의 약 79%)가 다음 3년 동안 정보 보안 예산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과 싸우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

이 보고서는 또한 뉴욕주 은행들의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도록 DFS가 시행할 여러 조치들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확실하고 꾸준하게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정기 DFS 검열 절차의 일환으로 각 은행의 사이버 보안 대비에 대한 새로운 목표 지향 평가가 포함됩니다. 수정된 검열 절차에는 IT 관리 및 통제, 사고 대응 및 사건 관리, 액세스 통제, 네트워크 보안, 벤더 관리 및 재난 복구 분야에 대한 추가 질문이 포함됩니다. 수정된 검열 절차는 은행의 사이버 대비를 전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으로서 각 은행의 독특한 위협 특징을 반영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DFS는 다음 몇 주 내에 이러한 검열 절차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입니다.

DFS는 또한 모든 뉴욕주 인가 예금 기관들은 크기에 관계 없이 금융서비스부-정보공유분석센터(“FS-ISAC”)의 멤버가 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멤버들은 물리적 및 사이버적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시스템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통지 및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받습니다. 사실상,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토보안부는 위기시에 FS-ISAC에 의지하여 중요 정보를 금융서비스 부문에 전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FS-ISAC은 전체 금융서비스 산업에 익명 정보 공유 능력을 제공하여 은행들이 물리적 및 사이버적 보안 위협뿐만 아니라 취약성, 사고와 잠재적 보호 조치 및 관행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는 뉴욕주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Cuomo 지사의 지속적 다짐의 일환입니다. 작년에 주지사는 [사이버 보안자문단](#)을 구성하였는데, 이 자문단은 행정부와 협력하여 뉴욕커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은 사이버 보안의 발전에 대해 행정부를 자문하고 뉴욕주의 주요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권고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